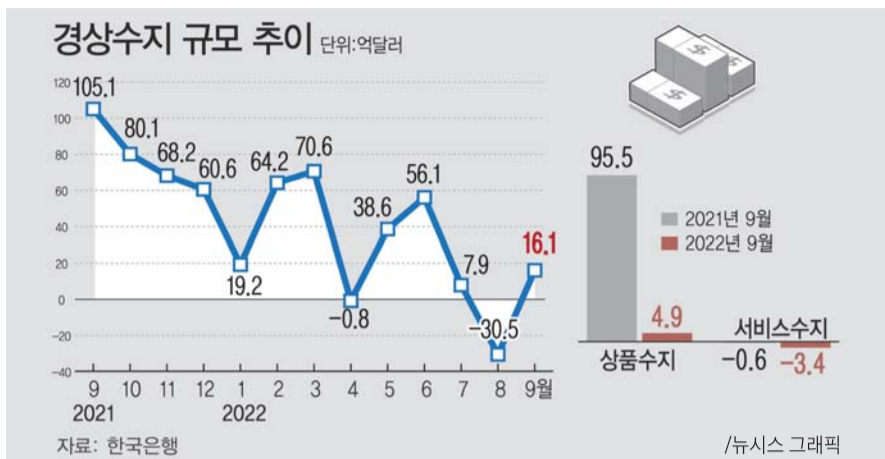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폭 급감... 경상수지 16.1억 달러 '흑자 전환'

한국은행, 9월 국제수지 발표  
수출 전년 대비 15.4억 달러 늘어  
흑자폭 전년 대비 88.9억 달러 줄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8월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며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하면서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기보다 90억 달러 넘게 급감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10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월보다 88억9000만 달러 축소됐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8월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며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한 데다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

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라며 "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흑자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인 상품수지는 수출이 소폭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전년 동월 5억5000만 달러에서 4억9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억4000만 달러(2.7%) 늘어난 574억5000만 달러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다. ▲석유제품 51.3% ▲승용차 34.9% ▲선박 20.0%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수출은 중계무역수출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0월

-3.5% 이후 23개월 만의 감소세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의 경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각각 25.3%, 10.6%, 13.0% 증가하면서 97억7000만 달러(18.6%) 늘어난 612억3000만 달러다.

같은 기간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18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억3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은 7억1000만 달러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12억2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3억9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8억3000만 달러 급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다. 전년 동기(-1억20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3억4000만 달러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2억8000만 달러 증가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운송수지가 1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7억2000만 달러 줄어든 영향이다. 운송수지가 주춤한 건 수출화물운임이 하락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했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도 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6000만 달러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45억9000만 달러가 늘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7억8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4억7000만 달러가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5억 달러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4억9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삼성전기 FCBGA 출하식에 참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6번째)이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이재용, 부산 스마트공장서 상생 행보

'동아플레이팅' 삼성전자 지원 받아 생산성 37% 확대, 불량률 77% 줄여 "건강한 생태계로 상생 선순환 이뤄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스마트 공장' 현장을 찾으며 동행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8일 부산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했다.

동아플레이팅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201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혁신으로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을 37% 높이고, 불량률을 77% 줄였다. 근무 환경도 개선해 임직원 평균 연령이 32세에 불과하다.

동아플레이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표창을 받으며 상생협력 우수사례로도 평가받은 바 있다. 도금이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임에도 3D 업종이라는 편견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했던 상황,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편견을 깨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기업으로 변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행선지로 광주 협력사를 찾았다. 그 다음으로도 대표 CSR 프로그램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미래 동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미래 동행' 철학을 기반으

로 CSR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며 상생 노력을 확대해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청소년교육 ▲상생협력 등 두 가지 CSR 테마를 선정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상생협력력을 위한 주요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C랩과 안내견 사업, '나눔키오스크'와 '상생/물대펀드'를 통해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도금 업체인 동아플레이팅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서 열린 서버용 FCBGA 첫 출하식에도 참석했다. 서버용 FCBGA는 고성능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패키지 기관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고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의 서버용 FCBGA는 명함 크기만한 기관에 머리카라 굵기보다 미세한 6만개 이상의 단자를 구현해냈으며, 1mm 이하 얇은 기관에 수동 소자를 내장하는 EPS(수동부품내장 기술, Embedded Passive Substrate) 기술로 전력소모를 50%로 절감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대기업 반도체·車 계열사 증가, 부동산 감소

공정위, 8~10월 소속회사 변동현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 2887개사 변동 76곳 중 58곳 편입, 57곳 제외 SK, 계열사 11곳 편입으로 '최다'

최근 3개월간 대기업 반도체와 자동차 계열회사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계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SK는 11개의 신규 계열사를 편입했고, 카카오는 6개 계열사가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올해 8월~10월까지 76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7월31일 2886개에서 10월31일 2887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이 기간 27개 집단이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58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같은 기간 28개 집단은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57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0개였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1개)였고, 이어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순이었다.

SK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하부구조물

(2022년 8월1일~10월31일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자료=공정위

2022. 8.1.	편입				제외				증감	2022. 10.3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2,886	29	22	7	58	9	6	30	12	57	1	2,887

제작업체인 삼강엔터티 외 동반편입 2개사, 대리가사 중계 솔루션업체 로지소프트 등 지분을 취득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디와인더스 및 디와이플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했다.

KG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용자동차 지분을 인수했고, 이와 관련해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개사를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길픽처스를, 중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씨브라임의 지분을 인수했다.

계열 제외 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아이에스지주(9개)였고, 이어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순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인 샌드위치타임 등 2개사는 흡수합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넥셀론 등 2개사는 지분매각으로 제외됐다. 이외에 1개사는 청산종결, 1개사는 임원 사임으로 제외됐

다. 대기업 부동산 관련 계열사 청산종결 등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신규설립대 편입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아이에스지주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누건설 등 9개사, 대방건설 소속 건설업체인 디엠건설 등 4개사, SM 소속 건설업체인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가 청산종결됐다.

반면, SM 소속 건설업체인 유비씨플러스, 태영 소속 부동산 개발사인 천안 에코파크 등 2개사, 신영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등 2개사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보유한 사례가 있었는데, 효성은 효성벤처스를 신규 설립했고, CJ는 소속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같은 집단 소속 CVC인 타임와이즈인 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일반주회사인 CJ에 매각하고 해당 CVC는 CJ인 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푸르밀 '30% 감원' 후 회사 재매각 추진

"감원 후 인수업체 물색 하기로"

이달 중 사업종료와 함께 전직원 해고를 통보했던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인원 30% 감원' 조건에 회사를 재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푸르밀 노조는 8일 전북 전주공장에서 사측과 4차 교섭을 진행, 이같은 협상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본사

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교섭했다"며 "장시간 논의 끝에 회사는 노조가 제시한 30% 구조조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임직원 감원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수업체를 물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교섭에서는 신동환 대표이사가 직인 50%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두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이후 지난 4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는 노조가 사측에 30% 구조조정과 회사 매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측은 이번 4차 교섭에서 3차 교섭 제안을 수용했다.

푸르밀 노사가 인원 감축안에 합의함에 따라 회사는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새 인수업체를 물색할 예정이지만, 재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